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진홍우 편집: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찌더나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

회개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돌아보시며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의 전부를 늘 요구하셨다(창 22:12,16).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총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롬 8:38-39)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마 10:37-39). 인간은 인생의 길을 자신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울무에 스스로 묶인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지만 인생은 자기의 것들로 인하여 슬픔을 만들어낸다(요일 2:15-17).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바로 회개이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비밀이며 은총이다(벧전 2:23-25).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역사가 없어져야 한다(롬 6:7-9, 8:9-10).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회개함이 무엇인 지조차 모르는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고 굳어져서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자신을 원망하고 또 추회하면서 다음에는 잘해야 한다는 결심을 회개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윤리적인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신다(마 1:15).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요 14:1-3).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죄로 인하여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이 있는가! 나만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나를 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함이 있을 때 정결함도 없다. 정결치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정결치 못하다는 것이다(수 13:1). 모든 욕심을 다 버려라. 참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말로만 사랑이요, 말로만 회개요, 말로만 감사인 가증한 존재이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회개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용서함을 받아야도 받지 못하는 마음,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종 같은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고,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아직도 죄책감에 눌리고 슬퍼한다. 회개하고도 용서받은 줄도 모르며, 이것조차도 우리의 주권 아래 불되고 있으니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 이는 나의 죄악이 내 힘으로 씻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악이 용서 받은 줄 알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용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어둠에 처한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늘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 있으며 그 기쁨에 죄 씻음 받은 기쁨이 넘치는 자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18).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는 이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단들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용한다는 점입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그들은 우리 주위를 뒤흔들며 “복음을 더 알고 싶지 않느냐, 성경을 공부하라 가자”는 등 감언이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매우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권계한 후에 멀리하라”(딤후 3:10).

앞으로 이단들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미혹해 올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요일 5:4). 특히 외부로 성경을 공부하려 간다거나 복음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충현성경통산>을 기본으로 하여, <충현의 만나> 그리고 교육훈련센터서 주관하는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 2011년 제4차 학습세례식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LET'S MEET THE GOOD SAMARITAN

⁽²⁵⁾*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²⁶⁾*"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

⁽³⁶⁾*"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³⁷⁾*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Luke 10:25~37)

Before Jesus told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a lawyer asked Him a really good question,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Lk. 10:25). Jesus asked the lawyer,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 (Lk. 10:26). The lawyer respond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Lk. 10:27). Jesus responded to the lawyer,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Lk. 10:28). The lawyer then asked the troublesome question, "And who is my neighbor?" (Lk. 10:29). Do you know who your neighbors are? Jesus responded to this question with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o teach us responsibility to our neighbors and to show us who neighbors really are. Let's look at this wonderful parable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Let's imagine that the victim represents sinners. The victim was travel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Jerusalem suggests God's place of blessing, the location of His Temple. Jericho corresponds to a place that God curses, the site where the walls tumbled down. The victim was headed the wrong way, like sinners without Christ. As he traveled, a bunch of robbers jumped him. These thieves embody Satan,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Jn. 10:10). These thieves took his clothes and beat him half to death. The stripping away of his clothes is like a man without righteousness. His half dead status epitomizes a sinner's spiritual life,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sinful nature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objects of wrath" (Eph. 2:1~3). We are all born sinners who would fall prey to Satan if it were not for Jesus Christ.

Let's imagine that the Levite and priest represent today's preachers. As the victim lay on the ground in obvious need of help, the Levite and priest walked past him. If a sinner gets in trouble and closes their eyes in prayer for God's help, then opens them to find a preacher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em, the sinner is probably thinking that God answered his prayer. Problem is that today's preachers are telling this poor victim that he shouldn't have walked down that bad road; he should have gone the other way. As the victim lies dying, today's preachers are telling him to remember not to come this way again. They're reminding him to think twice before making bad decisions. The priest and Levite had the authority and power to bless the victim, but instead chose no real action. Ephesians 4:25 says,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and speak truthfully to his

neighbor, for we are all members of one body." Colossian 2:8 says,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through hollow and deceptive philosophy, which depends on human trad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rather than on Christ." And finally, Galatians 5:4 says, "You who are trying to be justified by law have been alienated from Christ;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The victim was lost, and he needed saving. The priest and Levite represent religious instruction and ceremony, which did nothing for our half dead traveler. The human heart is in need of more than exposition and instruction. Lost people need salvation.

Let's imagine that the Good Samaritan represents the Savior of sinners. The Samaritans were rejected by Israel, just like Jesus.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Like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Is. 53:3). Our God from heaven came down, but the Israelites crucified Him, all the while claiming they wanted their Messiah. As the Samaritan journeyed, he had a definite destination, just like Jesu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k. 19:10). The Samaritan had the love and the sacrificial heart, along with the oil and wine necessary to treat the injured victim. He took compassion on him. He got to the heart of the problem and bound his wounds. He brought him to shelter, and cared for him there,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Lk. 10:34). The Samaritan cared more for the lost man than for himself. If he didn't touch this man, this man would die. He paid for the injured man's care until his return, like Christ paid for us until His return. The Samaritan promised to return, as our Lord is sure to come back. This story is not yet finished.

My dear friends, we are all sinners and not one of us is righteous. We need this Good Samaritan. We spend much time looking for truth, but most of our avenues lead to empty resolutions. Things sound good at first, but no real truth comes to light. The Good Samaritan had everything, but no one liked him. He was rejected by the world. Philippians 2:6-8 say,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That's why we couldn't recognize Him. We're always trying to find God's blessings in worldly riches and power. If you really want to find the Good Samaritan, you have to go to the cross. At the cross, you'll see real truth. Jesus died for you and sacrificed Himself for your salvation because He loves you. His love is forever. Amen.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리라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25~37)



김성관 목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참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0:25).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리라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 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 10:27)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눅 10:28). 그때 율법교사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눅 10:29).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르치며 누가 진실로 우리 이웃인지 보여줍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놀라운 비유를 살펴봅시다.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난 자가 죄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러고로 내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축복의 장소를 상징하지만 여러고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이었습니 다. 그 강도 만난 자는 마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죄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행하는 도중에 강도 때가 나타나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요 10:10).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가 초추검이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여기서 그의 옷 벗겨짐은 마치 인간의 의로움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추검이 된 그의 상태는 죄인의 영적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 2:1~3).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모두 사탄의 먹이가 될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 교역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자는 땅바닥에 쓰러져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지나쳐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죄인이 고통 중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뒤 눈을 떴을 때 바로 앞에 교역자가 서 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역자들이 이 불쌍한 자에게 왜 그 나쁜 길로 갔나면서 옳은 길로 갔어야 했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쓰러져 죽어가는데, 오늘날 교역자들은 그에게 이 길로 다니는 오지 말 것을 기억하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잘 생각해 볼 것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만한 권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25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한 골로새서 2:8은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

입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4에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강도 만난 자는 길 잃은 자였으며, 그렇기에 그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과 예식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초추검이 된 여행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설명과 가르침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죄인들의 구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에 의해 버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끼리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이스라엘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면서도 내내 메시아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처럼 확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다친 자를 치료하는 데 쓸 기름과 포도주는 물론,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으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눅 10:34).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보다 그 잃어버린 자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그가 돌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모두 치르셨듯 그는 자신이 다시 율 때까지 드는 모든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우리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진리를 찾는 데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길이 무의미한 결론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게 들리지만, 참된 진리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의해 버림 받은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6-8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부요함과 권력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참 진리를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려 자신을 희생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⑦

예수께서 잡히시다

모습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예수님을 잡는 데 가롯 유다의 역할이 크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다. 요한과 누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님이 잡힌 뒤에 끌려 가신 곳이다. 그곳은 유대 종교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의 집이다(요 18:12~13; 눅 22:54).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고대하였던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던 예수님을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를 이용하여 죽여 마땅한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들과 비슷하다. 예수님을 이용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종교적 권위와 전통에 빠져 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에 대한 마태와 마가의 초점은 요한과 누가와 약간 차이가 있다. 마태와 마가는 가롯 유다가 보낸 입맞춤 신호에 따라 예수님이 잡혔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손을 대어"(막 14:46; 마 26:50)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손을 댄다는 것은 경멸, 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사용되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22:12).

또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다고 추궁 받던 군인이 요압에게 한 말 속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삼하 18:12).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잠시 보이셨지만, 그 신적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지는 않으셨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셨다(눅 20:19; 요 7:30, 44).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이다. 병자들, 죄인들, 수감자의 여인, 거라사의 광인 등 예수님은 소외받고 보통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들을 향해 가셨고 그들 곁에 항상 계셨다(눅 19:10). 예수님은 잡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말고를 고쳐주셨다(막 14:47).

예수님은 검과 모자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끌려 가셨다(막 14:48~49).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감탄했고, 병 고침을 비롯한 놀라운 이적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고,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였다(막 14:53). 예수님은 항상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고,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셨지만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호(막 14:44)를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오히려 잃는 자, 지는 자,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 매주 필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읽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의 예언 동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구약 시대를 관통하며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께서 성육신(Incarnation)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성육신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예정된 대로 일어난 것임을 중언해 준다. 또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구원은 그저 관념적 허구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예언이 전 역사를 관통하며 계속되어 바로 나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과 훗날 최후 심판까지 진행될 것임을 확신시켜 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하여 살펴보자.

예언구절	내용	성취구절
창 3:15	여자의 후손	갈 4:4
창 12:3	아브라함의 씨	마 1:1
창 17:19	이삭의 후손	눅 3:34
민 24:17	아람에서 나온 한 별	마 1:2
창 49:10	유다 지파 출신	눅 3:33
사 9:7	다윗 왕좌의 후계자	눅 1:32
시 45:6-7	기름부름 받은 영원한 왕	히 1:8-12
미 5:2	베들레헴 탄생 사건	눅 2:4-5, 7
사 7:14	동정녀 잉태	눅 1:26-31
단 9:25	탄생의 시각	눅 2:1-2
호 11:1	애굽 피난	마 2:14
렘 31:15	유아 학살 소동	마 2:16-18
사 40:3-5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함	눅 3:3-6
말 3:1	선구자의 예비	눅 7:24, 27
말 4:5-6	엘리아의 미리 올	마 11:13-14
시 2:7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	마 3:17
사 9:1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	마 4:13-16
시 78:2-4	비유로 말하여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심	마 13:34-35
신 18:15	선지자를 일으키심	요 6:14
사 61:1-2	상한 심령의 치유자	눅 4:18
사 53:3	동족 유대인의 멸시와 버림 받음	요 1:11
시 110:4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	히 5:5-6
속 9:9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막 11:7, 9, 11
시 8:2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	마 21:15

예언구절	내용	성취구절
사 53:1	세상의 불신	요 12:37
시 41:9	가까운 친구인 제자들의 배반	눅 22:47-48
속 11:12	은 삼십에 넘겨무심	마 26:14-15
속 11:13	토기장이의 발 값에 팔리심	마 27:6-7
시 109:7-8	배신자 유다의 운명	행 1:18-20
시 35:11	거짓 고소를 당하심	막 14:57
사 53:7	군속 당함에도 침묵하심	막 15:4-5
사 50:6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고 매 맞으심	마 26:67
시 35:19	까닭 없이 미운 바 되심	요 15:24
사 53:5	찢리고 상하고 채찍 맞으심	롬 5:6, 8
사 53:12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심	막 15:27
속 12:10	손발을 찢리심	요 20:27
시 22:7	멸시와 수치를 당하심	눅 23:35
시 69:9	비방 당하심	롬 15:3
시 69:21	술개와 신 포도주를 받으심	요 19:29
시 109:4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	눅 23:34
시 22:17-18	그 옷이 제비 뜯혀 나누임	마 27:35
시 22:1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심	마 27:46
시 34:20	그 뼈가 꺾이지 않음	요 19:33
속 12:10	열구리가 찢리심	요 19:34
사 53:9	부자처럼 장사되심	마 27:57-60
시 16:10	부활하심	막 16:6-7
시 68:18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	막 16:19

나의 눈물을 찾게 하셨다

베트남 단기선교를 통하여 '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 중에도 이전의 선교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장 되셔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셨다. 식어가던 나의 열정을 다시금 뜨겁게 하시고 메달라가는 나의 눈물을 찾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베트남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김사무열(대략부)

소망을 가지고

언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첫날 사역에서 언어의 부족함을 느꼈다. 사역 평가회를 끝내고 다시 언어를 복습하고 주님께 어눌함을 고백하며 담대함을 간구한 뒤 그 다음날 사역을 나갔다. 어찌보다는 복을 전하기가 쉬웠고, 담대함도 생겼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땀이 났지만 한 가지 가정을 방문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아멘" 하였다. 몇 사람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명애(집사, 19교구)

우물가 여인처럼

나를 구원해 생령 주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게 하시어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자들이 불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으로 우물가 여인처럼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바라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심령에 복음의 씨가 자라 열매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수련(권사, 14교구)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밀음이 연약한 내기 과연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등 나의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으나 그때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친공랑에서 만난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실제 언어훈련을 하게 해 주

생애 처음 단기선교를 가는 저는 팀 훈련 3개월 동안 '팀원들과 화평케 하시고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 주님의 섬세하고 치밀하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 축회전도에서 처음 외치는 복음과 "쁘레아 예수 프롬 스프라인 네악"(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열심히 외쳤으나 역시 허가였고 마음은 급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 언어훈련을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회개를 하며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 덕분에인지 주일에 전도언어가 마치 방언이 터진 것 같이 술술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케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선교 기간 중에 함께 해 주신 성령 예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안재선(집사, 14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4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18교구 1팀	이석재
8월 22일(월) - 8월 29일(월)	18교구 3팀	안연식
8월 22일(월) - 8월 30일(월)	9교구 1팀	전성욱
8월 25일(목) - 9월 1일(목)	2교구 3팀	박종철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5일(월) - 8월 23일(화)	12교구 2팀	정옥련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5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8일(월) - 8월 16일(화)	8교구 1팀	박영식
8월 9일(화) - 8월 17일(수)	14교구 3팀	신영환
8월 10일(수) - 8월 18일(목)	20교구 1팀	배종락
8월 11일(목) - 8월 18일(목)	4교구 2팀	김영모
8월 12일(금) - 8월 20일(토)	17교구 2팀	남종호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어름성경학교 · 수련회

이런 성경학교 때 배운 열 가지 재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에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안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겠다.

최인혁(초동2부)

2011년
어름성경학교 · 수련회
규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7월 26일, 교사가 되고 나서 두 번째로 맞는 성경학교였다.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해 보고 지도해 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에 서툴렀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는 온갖 힘들거냐'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들은 정해진 주제 안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연습해 오면 되었지만 계속 어렵다며 물어 겨자 먹기로 프로그램을 짜냈다. 같은 과 선생님과 찬양 인도를 위해 율동을 구상하고,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해로에게서 아기를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게임을 구상했다. 몸치에 게임에도 그다지 소질이 없던 나였지만 그래도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구상하여 준비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성경학교가 다가왔고, 준비는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최종해요라고 기도하며 성경학교를 맞이했다. 그래도 우리는 '파이팅' 하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동체 훈련에서 생각지도 않게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 주어 일찍 끝나 당황하기도 했고, 또 열심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느덧 폐회예배로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우리 과는 기쁘게도 주님 보시기에 예쁜 5등을 하였다. 그렇게 어름성경학교가 끝났다.

사실,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면서 가르치는 학생보다 더더욱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다. 성경 지식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우릴 위해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비록, 이게 끝이었던 나는 처음 초동2부에 왔을 때 기겁을 했다. 그 이유는 고작 11살인 아이들이 나온다.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깜짝 놀라 연이이 방방했다. 그리고 교사로서 돌아와 다른 선생님들을 보았을 때, 더 놀랐다.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이 초동2부뿐만 아니라 기지근과 교구 여러 부서 등에서 나보다 소싯대 못할 봉사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다들 비탄성 텐데도 일부러 신장 쓰셔서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셨다. 더욱 놀랐던 건 일부러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 집안 사정으로 못 오신 선생님 이후에 필사적으로 나와 동참해 주신 것, 우리보다도 힘드신 텐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직접 필을 걷어 붙이고 참여하시는 과장님 등 여러 연으로 놀라며,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다 되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구나'라고 감사하니 나의 앞은 믿음과 주님을 향한 나의 부족한 마음이 회개가 되어 학생들보다 더 큰 것을 깨닫는 성경학교였다.

처음엔 친구가 '교사 할래?' 해서 시작했던 교사라는 직분 속에서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고민하던 나에게 성경학교를 비롯해 초동2부에 있는 한 차례 한 차례가 소중하며, 그들을 보며 좀 배우고 회개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인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님을 멀리하기엔 바빴던 나, 그런 나에게 주님은 초동2부를 통해 나를 놓치기 않으려고 출을 묶어놓고 끊임없이 끌어당기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다. 다시금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기도드려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지현(교사, 초동2부)

고등부, 은혜의 맛을 알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 부흥회와 둘째 날 진행되었던 물놀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박용규**
- 둘째 날 부흥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기도 시간도 길었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던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박용규**
- 첫째 날 프로그램 시간에 고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둘째 날 부흥회 시간에 고3들이 많이 와서 특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하던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박영진**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시면,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아이들이 수련회에 잘 왔더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 대부분이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박용규**
-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들을 보았을 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놓고 부흥회 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순

간 마음속에 쌓여 있던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정말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박용규**

- 진로와 가족 건강과 학업 생활에 대해 기도를 했는데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박영진**

부흥회 때 동기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땠나요?

-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기들끼리 기도해 주는 건 처음이어서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박용규**
- 동기끼리 다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온지 않은 일인데,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다만 동기들이 많은데 장소가 생각보다 좁아서 몇몇 빠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고나. 동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박용규**
- 각각의 아이들에게 있는 아픔이나 믿음, 괴로움,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 기도들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온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박영진**

성경 필사를 했는데 읽지는 않았나요?

- 수련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저걸 사람들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등부 지체들이 다들 열심히 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박용규**
- 단순히 읽는 것과는 다르게 쓰면서 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규**
- 평소 (종영의 만나)를 할 때 외에는 성경을 적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새로 보게 되니까 참 좋았던 거 같아요. **박영진**

많은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섬김도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가 은혜로웠던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혜였다. 고등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은사로 가득할 것이다.

최재 · 김성혜 기자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예수님이 좋다!

★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여,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나같은 길을 모를 때 기도를 통한 응답을 구하게 된다. (김수진)

★ 동생이 몇 달 전부터 교회에 다녀서 같이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모든 것에 자재하게 되고 내려놓음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백승환)

★ 어느 주일 오후에 회사 앞 주차장에서 여사 두 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울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 승천하셨으며 언제까지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전엔 직원들이 몇 번 교회에 가라고 했지만 대꾸도 안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있다. (정혜원)

★ 우리 식구는 천주교인들이다.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같았다. 결혼을 하고 신앙을 따라 종교를 개종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큰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새 가족양육부에서 복음을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은 점점 변하게 되었고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 아직까지는 확신이 잘 안치는 못하지만 믿음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다. (조은경)

★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참 착하신 분이려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다른 장점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원)

★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부활과 영생과 재림을 믿고 이를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좋다. 나의 회로백에 좀 더 느긋하게 대할 수 있는 여부가 생겼다. (김영순)

★ 결혼할 예비 신앙을 따라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내 죄로 인해 죄 없는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겠다 생각이 든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기 성품을 알 수 있어서 좋다.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삶의 여유를 찾고 맘의 평안을 찾았다. (민미영)

★ 여사 친구의 가족들의 전도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질어지신 것을 의미한다. 주말에 활력이 생겼다. 마음이 편해졌고 급한 마음이 좀 차분해졌다. (정영문)

★ 이사를 와서 가까운 천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의 삶을 살 아도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희생적인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에 주셨으므로 평생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일주일 동안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러한 죄의 삶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재하게 되는 경건한 삶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항상 내 삶 가운데 내재하게 되었다. (정보은)

★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시 교회에 다녔고, 그 이유는 다녔던 적이 없던 나는 청년부가 결연 세미나에 대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던 구원의 강소이자 복음의 강소라고 생각한다. 천주교회에서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참 뜻을 생각해 야 한다고 했으며, 십자가는 나에게 단순한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재된 참 뜻을 가르쳐 주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고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아직 까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좀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땀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는 점이 달라졌다. (조효정)

★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이렇듯 기독교인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는 않았다.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기를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믿음이 크지 않다. 이제 청년부에 들어가서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같이 회교를 다니고 성경공부를 하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많이 설렌다. 청년부를 통해 믿음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미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복음칼럼

성경학 박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받을 것이다(계 22:12; 사 40:10). 이날에 그와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마 21:5,7). 왕의 도복에 대해서 왕은 이미 알려 주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또한 왕이 올 때 일어날 큰 난관에 대해서도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마 24:21-5).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땀을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계 19:11-13). 아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천주교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번호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719	강윤영	청년1부	2	
2720	송희진	청년1부	1	
2721	이선희	중등부	24	김예진
2722	윤운우	양육반	23	한남주
2723	임창선	양육반	4	안세현
2724	마노지	외선부	25	차진다
2725	김유진	양육반	17	김연희
2726	김유진	양육반	8	안세현
2727	맹수신	고등부	7	김미영
2728	주광성	양육반	8	강진철
2729	위따르니	외선부	25	정명자
2730	박진형	청년1부	2	한만교
2731	최도현	고등부	5	이성우
2732	제갈민	양육반	16	태명자
2733	정태희	양육반	16	강영지B
2734	박지혜	초등1부	22	김희옥

